

서양여성의 헤어스타일이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 -194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김진숙

김천대학 뷰티아트계열

Influence of Western Women's Hair-style on the Korean Women's Hair-style

Kim, Jin-Sook

Dept. of Beauty & Art, Kimcheon College
(2005. 1. 21 접수)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whether affected some South Korea woman's hair style comparing change of West woman's head form after the mid-1940s. This research purpose is analyze effect that examine South Korea woman and West woman's hair style and compare change special quality and get in our country hair style until 1980 after the mid-1940s. This dissertation is literature research that analyze change process of West woman's hair style and South Korea woman's hair style. Investigation method utilized dress and its ornaments connection books and treatise, beauty art connection books and treatise such as the South Korea and western dress and its ornaments. The following is the chronological analysis of the influence the western hairstyle has had on the Korean women. The hairstyles in Korea have been profoundly influenced by the western culture, especially the western makeup styles and hairstyles. Therefore, exploration of the western hair and makeup-styling conveys a great significance in conducting researches on the Korean hairstyles.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hair style of our country received much effects from make-up culture specially Occidentalism, hair style culture by each age, European beauty art culture research can assume that scientific analysis of west woman's clothes and make-up is important in our country hair style research. In the future, it is believed that the cycle of changes in hair-styling will get remarkable shortened with the advance in the computer technology, which enables the world to have a much faster access to other cultures over the Internet.

Key words : Chronological analysis(년대별 분석), Literature research(문헌연구), Occidentalism(서양식, 서양기질), Scientific analysis(과학적 분석), Exploration(탐구)

*Corresponding author: Kim, Jin-Sook
E-mail: kimjs545@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용이란 인체에 표현되는 하나의 예술성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적인 가치 판단과 각 개인 고유의 심리적 발로이며 생활양식의 직접적 표현이다¹⁾. 인간의 미에 대한 추구는 그 기원을 원시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예술분야는 물론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실용성과 미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인간본래의 욕구에 의한 것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고대사회와 같이 일부 특권 계급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균등하게 미적 권리를 갖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시대가 되었다. 헤어스타일(hair style)은 머리형이나 머리 형태, 머리 풍을 말하는 것으로 헤어두라고도 하며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 형태나 유행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미용은 의·식·주를 만족시키는 물자를 직접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생산의욕을 높이 향상시키는 데에 커다란 의의와 목적이 있다²⁾.

다변화한 20세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은 우리의 의식주문제 및 개인의 개성 표현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양한 미적 가치의 확대 및 다원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성의 지위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보이면서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여성미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력 향상에 따른 자기 표현방법과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변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미의 외적 기준은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항상 변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대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산업혁명 이후 대중문화의 확산과 물질적 풍요로 인해 아름다움의 추구는 신체 장식과 관련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대적 변천 속에서 미용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미용을 단순한 장식의 의미로 국한시키기에는 너무도 그 영역이 커졌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헤어 디자이너의 개념도 재정의되었다. 종전에는 단순히 두발 형태의 미적 접근에만 그쳤지만,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수

단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개성의 강조와 유행의 흐름에 새로운 미용예술이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발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유행은 헤어스타일 이든 복식이든 그 흐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있다. 그 시대의 유행 헤어스타일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회적 현상을 밀바탕으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알아보고 유행의 흐름을 미용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와 필요성에 따라 1940년대 중반부터 1980년까지의 한국여성과 서양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비교 분석하여 서양의 헤어스타일이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양여성의 머리형태의 변천을 살펴보고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194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여성과 서양여성의 헤어스타일을 연대별로 살펴보고 서양의 헤어스타일과 사회상의 변화 특성을 비교하여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서양의 헤어스타일이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 문화에 수입되면서 어떠한 헤어스타일로 변화되고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본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서양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의 변천 과정을 분석한 문헌 연구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한국과 서양의 미용문화 변천과정을 연대별 헤어스타일과 미용 산업을 분석할 수 있는 한국 및 서양 복식사 등 복식 관련 서적과 논문, 미용 관련 서적과 논문, 미용 미학과 문화사, 미용협회회보, 대한미용사협회 간행물,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정기간행물(trend book), 패션 잡지 및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헤어스타일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을 수집 검토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사진은 연예인들 및 헤어모델의 헤어스타일이 대중들에게 일반화되고 유행의 흐름에 민감하여 이들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1940년대 중반부터 1980년 까지 한국과 서양

의 헤어스타일로 한정하였고 서양이란 해방 이후 한국과 가장 밀접한 문화교류를 가진 미국을 표준으로 삼았으며 비탈 시순 이후의 영국도 가미하였다. 1940년대 중반 이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일제의 압박 밑에 있던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폐쇄적이어서 서양문화가 거의 수입되지 못하다가 해방이후부터 문화교류가 활발해졌고 특히 미국 문화 또한 이 시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문화로 한정하였다. 또한 1980년 까지만 한정한 것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부각되어온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등장으로 기존의 남성, 여성의 이분법적인 성이 아닌 제3의 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어 여성만을 위한 헤어스타일 연구는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연구 테마로 삼을 필요성과 80년대까지가 현재 헤어스타일의 서양화의 기반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어 80년대로만 범위를 한정하였다.

II. 서양여성의 헤어스타일이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

1. 1940년대 중반 이후

194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광복된 연대로 헤어스타일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시점이다. 이 당시 서양에서는 2차대전으로 여자들의 머리 모양이 곱슬 거리는 긴 머리모양으로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자들은 머리를 등 뒤와 어깨로 길게 늘어뜨렸으며 긴 머리를 이마 위로 빗어 넘긴 팍프 도어 모양이 유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들레 머리라도 흡사한 스타일로 팍프 도어와 들레 머리의 변형된 스타일로 학생들에게 유행되었다. 스트레이트의 단발도 층을 조금씩 주어서 머리끝이 경쾌하고 움직임이 있는 다이내믹한 스타일을 연출해 냈다. 탑 부분에 웨이브를 넣거나 롤을 후두부에서 하나로 정리하거나 둘로 정리하여 후런치 풍의 세로 롤과의 조합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했다.

이와 같은 서양 헤어스타일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후에 일제 말에 금지되었던 퍼머넌트 스타일이 다시 등장하여 까뽀 머리나 묶은 머리의 전통적인 모양에 익숙해 있던 일반 여성들도 전기 파마와 더불어 가봉 파마가 나오고 원롤 지라시 등의 아이론에 의한 스타일의 유행으로 파마나 세팅 또는 아이론으로 웨이브를 만들었다. 전기 파마와 가봉 파마가 나왔지만 머리 전체에 웨이브를 낸다는 것은 그



<그림 1> 1945년 서양의 헤어스타일-1
<http://my.dreamwiz.com>



<그림 2> 1945년 한국의 헤어스타일-1
<http://www.women.or.kr>

당시의 미용기술로는 어려웠다. 그래서 뒷머리는 적당히 빗고 앞머리는 아이론으로 쉼과 웨이브를 작게 냈다. 이것을 그 당시 통용어로 아라이(자잘하게 묶는다는 뜻)또는 아이론이라 불렀다.

또한 부인들은 머리에 실을 집어넣어 하나의 롤(one roll)로 바깥 말음으로 감은 웨이브로 뒤에 롤을 말아서 프론트에 쉼을 만들었다. 이 스타일은 양장 차림은 물론 한복 차림에도 잘 어울렸으며 간단히 완성할 수 있으므로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과 변형된 것으로 서양의 것과 우리 것과 혼재되어온 형태로 지속되어 오다가 양장교복과 단발머리의 학생계층들의 외국문물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양식을 적극적,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선구자가 되면서 자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유엔군과 그의 부인들과 구호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문물은 직접적이고 급속도로 한반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양부인들의 강한 웨이브의 컬 파마, 빨간 입술, 빨간 매니큐어 등 서구 사회의 패션과 옥시폴을 사용하여 두발 전체를 탈색 하는 등 색깔변화와 더불어 서양화가 되어가는 시기였다. 근대 한국 미용계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의 우리나라 미용실은 미용인들이 미용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구나 재료, 시약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전근대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미용실이 늘어나기 시작한 때는 1950년대 후반부터이다. 파마머리라 하여 생머리를 불에 달군 고데기로 웨이브를 주었다. 이시대의 헤어스타일은 외국 영화 배우들의 모습에서 유행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50년대 포니테일 스타일, 푸들컷 스타일, v형 프랑스 헤어스타일, 이탈리아안 뺨이 스타일, 후라파 스타일, 원롤, 페이지보이등의 이름으로 스타일이 유행되면서 이런 스타일은 서양의 스타일이 한국에 들어와 이름이 변형되어 불려지기도 했고 그대로 불려지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그대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미용사들도 영화화에 자주 들렸다. 볼 파마에서부터 콜드파마까지 파마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아이롱을 이용한 웨이브, 업스타일이 유행했다.

50년대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뒷머리가 짧은 쇼트 스타일의 경쾌하고 보이쉬한 느낌의 도회적인 헵번 스타일은 긴 머리와 앞이마를 내 놓는 스타일로 우리나라에도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때부터 머리모양은 점점 더 다양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여 앞머리가 위로 치켜지며 뒤 중앙에서 오리꼬리 모양을 이루는 형태의 턱 테일 형의 머리모양에다 동양적 실루엣을 가미시키는 새로운 형태가 나왔다.

또한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이름이 붙은 시니온은 53년을 전후해서 미국에서 가장 대중화되었던 야외용 스타일로 모양은 사이드 파트이며 사이드에서 모발을 꼬이게 하여 변형된 후렌치 트위스트로 말아 올리거나 장식 핀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남겨진 모발은 웨이브를 살리면서 머리정상에 장식했다. 여배우 소피아 로렌, 영국의 마거리트 왕녀가 즐겨한 스타일인 부팡 스타일은 14세기 중엽부터 패션 계에서 사용되었으나 1958년경부터 부팡이란 머리형을 지칭하게 되었다. 수년간 일반인들이 선호하였고 점차 쇼트로 되어 안 마름(페이지보이)의 실루엣으로 S 자형의 웨이브를 만들어 두 귀를 덮어주는 부팡 헤어스타일이였다. 부팡 플립 스타일로 모발 끝을 걸 마름한 스타

일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두마끼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다. 그 영향으로 포니테일 스타일의 긴 머리가 짧은 층들을 사로잡을 정도로 유행했다. 말꼬리 모양의 포니스타일과 로맨스 스타일의 머리모양이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고르키의 명작소설 「뫼바닥 인생」에서 가련한 처녀 나스타샤 킨스키의 머리형으로 세 가닥 땅기로 모발 다발을 원추형으로 쌓아 올려 크라운에 장식한 업스타일로 긴 금발머리를 한가운데 가르마를 해서 헤어밴드처럼 머리에 돌려 감은 간편하고 심플한 스타일이었다. 곱슬곱슬한 지라시 파마와 보브 스타일의 단발 파마를 많이 하였으며 자연스런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셋팅 기구로 감거나 고데기로 웨이브를 느슨하게 걸 했으며 파마머리는 세팅이나 고대를 하기 위하여 하는 전 처리 단계로 이용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도 파마머리나 웨이브로 인해 예전의 평면적 헤어스타일에 비해 이시기에는 입체감이 있고 커다란 웨이브를 사이트에 부착시키고 크라운 부분은 평평하게 흘리거나 뒤로 분리하여 색다른 느낌이 나도록 입체감을 살려 디자인되었다.

또, 헵번 스타일과 더불어 스잔 헤이워드, 리타의 웨이브를 넣은 긴 머리 스타일을 부드럽게 뒤로 빗어 올린 프렌지 트위스트 스타일 등도 많이 따라했다. 여기에 비스듬히 모자와 베일을 써서 더욱 세련된 여성미를 표현했다³⁾.

20대 전후의 소녀들은 청순하며 깨끗하고 깜찍한 처녀의 이미지를 살려 늘어진 말꼬리 모양의 포니테일 스타일에 리본을 묶었는데 이것이 50년대의 특징적 스타일이었다. 이마와 뺨에 납작하게 붙인 애교머리스타일과 큰 웨이브를 평평하게 흘리거나 분리해서 컬 다발을 서로 다른 두발의 흐름처럼 취급하는 등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큰 웨이브를 사이트에 부착시켜 서양여성의 헤어스타일의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찌마끼(안말음), 소또마끼(겉말음)가 보편화된 스타일로 어깨선에 닿게 하는 정도의 기장을 마셀 아이론으로 시술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의 전쟁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치면서도 미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져 양감을 강조한 풍성하고 얼굴을 둘러싼 앞과 옆으로 최대한의 양감을 가진, 머리카락자체를 얼굴의 장식으로 이용한 스타일이 창안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기반으로 머리모양에도 스타일의 개념이 도입되고 미용사들의 활동도 늘어나게 되면서 미용교육기관의 본격적인 교육시점이었다. 정화 미용 고등기술학교의 설립과 예



<그림 3> 195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2
<http://www.allposters.com/gallery>



<그림 4> 195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2
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_

림 여자고등기술학교의 설립으로 도제식의 교육에서 체계적인 교육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3. 1960년대

1960년대 서양에서는 가발을 이용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이 시대의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인 비탈 사순이 전 세계의 미용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스럽고 부드럽으며 성숙한 매력을 표현한 기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이 등장했다. 그러나 특별한 스타일로 일반인에게 그대로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약간의 변형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얼굴형과 모질의 영향을 감안하여 선호하고 있는 헤어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파마머

리가 유행하여, 날씨가 습하면 아이론을 해놓은 머리가 주저앉아 파마를 해서 오래가도록 했다. 파마도 숯불로 하는 시기였다. 손가락 굵기 만한 동그란 숯을 불에 지퍼서 집게 양쪽에 달린 알루미늄클립(숯불을 담은 용기)에 넣어서 머리에 은박지를 붙이고 그 집게를 없으면 머리가 딱딱딱 해져서 파마가 되었다. 이 당시는 머리를 조금만 늘어뜨려도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반만 들어 올린 트위스트와 봄베이지 스타일의 짧은 머리이면서 위에 가발을 틀어 목선에서 5-6 cm만 내려와도 무조건 틀어 올렸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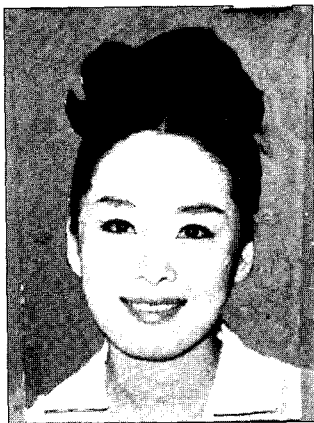
60년대 후반에 가발이 등장하면서 가발을 이용한 머리가 유행되면서 전반적으로 부풀려서 날개를 핀 물새처럼 기품 있고 풍만한 현대적인 감각을 웨이브에서 살린 크라운 봄베이지(Crown Bombage) 스타일은 크라운에 볼륨이 있고 부풀어 있는 모양에서 나온 말이다. 갖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형태로 정수리를 부풀렸고 백뿔을 넣거나 부분 가발을 없었으며 업스타일과 보브 스타일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크라운 봄베이지 스타일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형태로 변형된 예이다. 서양에서는 양감을 한껏 부풀린 스타일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다른 형태인 작은 방울들을 약간 넣은 아기자기한 업스타일과 보브의 조합으로 변형되었다. 한편, 백조 라인이라고 한 조금 변형된 스타일도 있었는데 이 스타일 역시 부드러운 웨이브를 사이드와 후두부에 풍만하고 소프트한 형으로 후두부의 가운데로부터 약간 밑으로 바람에 날린 듯 머리카락 끝을 울리고 앞에는 이마를 내보이는 형이다.

제클린 케네디가 즐겨 하였던 꿀 벌집 모양의 업스타일은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안토니오 피사넬로가 디자인한 머리형하고 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발랄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60년대 초의 여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⁵⁾.

비틀즈 보브 스타일도 팝음악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헤어스타일로 앞 프린지를 길게 늘어뜨렸으며 머릿결은 스트레이트를 하였다. 또한 금속성의 우주적인 느낌을 강조한 펄 재료 의상과 미니 스커트와 롱부츠와 앞코가 약간 무딘 로힐이라는 신발이 선보였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이때는 컷트라는 개념이 없었다. 아이론 기술을 위해서 두발을 자를 뿐이지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컷트를 하지는 않았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사회 참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여성들의 존재의식과 더욱 확고한 사회적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특수층



<그림 5> 196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3
<http://www.allposters.com/gallery>



<그림 6> 196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3
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_

과 부유층이 주 고객이었던 미용실이 대중화되었으며, 미용이 생활의 일부로 인식되어 일반 여성고객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4. 1970년대

70년대 초기에는 비달사순의 영향으로 각도에 의한 기하학적 커트 스타일이 붐을 이뤄 유행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서구에서는 비달 사순의 커트가 새로운 경향의 헤어스타일로 퍼져 나갔으며 헤어스타일 유행의 매커니즘은 거의 비달 사순에 독점되었다. 사순 풍을 모방한 각국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실력을 발휘하여 뉴 트렌드(new trend)의 창조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비달 사순은 서구에서 혁신적인 커트를 보브라는 언어로 묘사하여 구미에서 일

대 선풍을 일으켰다⁶⁾. 비달 사순의 커트 기법은 천재적인 재능으로 지금은 기업 명으로 남아 헤어 패션과 미용학교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기성세대에 반발한 사회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핑크스타일이 젊은이들의 독특한 문화양식으로 선보이기도 하였다. 핑크족의 헤어스타일은 파격적이었다. 머리를 불규칙적으로 갈라서 뽀족하게 만든 다음 뺏뺏이 세워 고정 시켜서 마치 머리에 빨이 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머리 양쪽을 바짝 자르거나 심지어 면도를 하고 앞이마에서부터 네프 포인트까지 넓은 부채 모양으로 손질해 수탉의 벼슬처럼 머리카락을 곳곳이 세운 모히칸족 헤어스타일이 선보이기도 하였다.

또 집시 풍 류의 유행으로 스카프를 유행에 상관없이 즐겨 사용했고 꽃 모양으로 각도를 지은 커트, 머리다발의 하나하나를 꽃잎으로 보고 머리전체에 꽃을 장식한 것처럼 한 기교적인 커트의 머리형이다.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한 고속성장으로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여성들의 사치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청바지, 생맥주등의 청년문화의 표현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에 반발한 사회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핑크스타일이 젊은이들의 독특한 문화양식으로 선보이기도 하였다. 경제성장과 생활방식의 복잡화로 여성들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연스러우면서도 간결한 머리형이 여성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졌다. 파마도 생활화되기 시작했고 커트라는 개념도 자연스럽게 생겨 '커트 요금'이라는 단어도 이때부터 생겼다. 당시 유행하였던 그레이스 리(본명 김경자)씨로부터 처음 시작되어 커트가 미용의 한 부분이 되어 정착되어졌다. 머리 손질을 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때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의 흐름은 파마의 꼬불꼬불한, 강한 컬(Curl)의 파마가 유행이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할 정도로 뿌리에 볼륨을 주는 강한 파마가 유행했다. 끝자락이 풀려서가 아니라 뿌리 부분에 볼륨을 얻으려고 파마를 했다.

유행 헤어스타일은 '상고머리'로 뒷머리는 층이 많이 자르고 윗머리는 길게 해서 뒤통수가 동그랗게 튀어나와 보이는 스타일이다. 정윤희, 유지인 해은이등의 연예인들이 많이 했던 일명 바람머리가 유행했었다.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게 된 것도 드라이기가 일반인에 많이 보급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⁷⁾.

우리나라에서도 커트의 개념이 긴 머리를 그냥 자른다는 개념에서 모발을 각도에 의해 모발을 나누어서 기하학적으로 자른다는 개념으로 바뀌어 정립된 시기이다. 해외로 미용 연수를 떠나거나 해외의 미용

세미나에 미용인들이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70년대 이전까지의 헤어스타일의 흐름인 자연스러움이 아닌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스타일로 탑 부위는 언밸런스한 그라데이션으로 소프트한 멋을 살렸고 네이프는 상고 단발 스타일에 귀밑과 목선을 앙증스런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짧게 커트한 머리에 컬러를 입혀 젊은 세대의 감각을 돋보이게 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스타일링 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웨이브를 주어 촉촉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살린 도회풍의 어심 메트릭한 스타일이다.

우리나라의 흑백 TV시대인 70년대는 색상에 대한 대중매체를 통한 급격한 유행의 확산보다는 영화를 통해 배우들의 선풍적인 스타일을 선호했던 것이다. 아이론과 셋트를 이용한 조형적인 웨이브 머리는 사라지고 대신 푹 떨어지는 볼턴트 커트와 깔끔한 블로우 테크닉이 발휘된 우아한 헤어스타일이 여성미를 잘 표현하였다.

1970년대 전반기에 레이어 커트 붐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고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제각기 개성화를 추구한 여성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초기에 유행한 커트로는 스퀘어 커트를 들 수 있는데, 이 커트는 뒤 목덜미 부위에 길게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게 하는 커트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거지커트로 한동안 유행하다가 두상이 나오고 목선이 긴 서양인에게는 어울렸으나 목선이 짧고 두상이 납작한 한국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기장이 다소 짧으면서 스타일은 비슷하게 변형되어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꾸준한 스타일로 정착되고 있다.

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특히 활동적인 여성들에게 머쉬룸(mushroom), 즉 버섯모양의 헤어스타일이 꾸준히 인기를 얻어 하나의 스타일로 정착 되었다. 이 스타일은 모발의 흐름이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흘러서 옆이 넓게 되며 모발 끝이 얼굴 쪽을 향해서 모아진 실루엣으로 중세의 승려머리 스타일에서 발달한 것이다. 귀여움을 느끼게 하며 투박하면서도 감각적인 헤어 포지션을 변형시킨 패션양식이다.

70년대 말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고 여성들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실용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간결한 머리형을 여성들이 선호하였다. 지금까지의 아이론과 세트에 의한 딱딱한 웨이브 구성이 서서히 사라지고 블로우 드라이란 새로운 기구와 기법에 의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소프트한 웨이브 스타일이나

왔는데 이 스타일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재미교포 미용사 홍 계남이었다.

서양에서 블로우 드라이 스타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바람머리 스타일이라고 하였는데 이 스타일이 소개되자마자 각 미용실에서는 이 새로운 기구에 의한 새로운 기법의 스타일을 배워서 고객들에게 보급하였는데 이로 인해 바람머리 스타일이 삽시간에 유행되었다.

또 전통적인 시저스(scissors)커트에 의한 블로우 스타일은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행하고 있다. 또 레저를 사용한 테이퍼 커트로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들의 머리모양은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 커트와 그에 따른 파마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그 파마머리에 블로우 드라이로 부드럽고 유연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파마는 아이론이나 셋팅, 또는 블로우 드라이를 하기 위한 전 스타일로 탄력 있는 웨이브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였다.

또 이때부터 불규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듯한 머리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순 커트의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시저의 커트로 여성미를 살려 만든 커트에서 곱이 움직이는 듯한 스타일로 완전히 조형화된 흐름으로 탈피하여 직장여성들에게 크게 유행되었던 한국인들의 밋밋한 얼굴에 어울리는 큰 케이브 커트(concave cut : 굴곡이 들쭉날쭉한 커트)라고 불리는 커트는 정면에서 보면 아주 경쾌한 흐름이 포인트가 되며 살아 흐르는 듯한 움직임이 색다른 스타일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져 시간이 절약되는 간편한 스타일을 원하게 되자 바디 파마라고 하는 자연스런 웨이브 파마도 나오게 되었는데 머리카락 끝에만 웨이브나 곱을 만들었다. 이 파마의 특징은 샴푸 후 스스로 손질하여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바쁜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였다. 생기발랄하고 젊음을 표현한 행동감 있는 무브먼트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심플한 실루엣으로 기능성을 지니면서도 여자다운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여성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 머쉬룸 스타일과는 반대되는 형으로 umbrella(우산)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은 파라솔을 펼 모양의 실루엣으로 머리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디자인된 곱을 한 스타일이다⁸⁾.



<그림 7> 197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4
<http://www.cyberbeauty.co.kr/link>



<그림 8> 197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4
<http://my.dreamwiz.com/orfeu/monro.jpg>

5. 1980년대

서양의 80년대는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과 잦은 파마와 염색, 탈색 등으로 손상된 모발을 보호 재생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⁹⁾. 서양의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도입되어 레트로 룩(Retro Look)이 주류를 이뤄, 컬(Curl), 웨이브(Wave), 펌(Permanent Wave)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여 헤어스타일에서는 80년대말 헤어 패션계를 휩쓸었던 디스커넥션 컷(Disconnection Cut)가 현대적인 감각과 어우러져 모더니즘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 텍스처(Texture), 컬러(Color), 메이크업(Make-up) 등에서 과장된 스타일이 시도 되지만 예전 그대로가 아닌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되어진다.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의 앞이마를

가린 듯한 바람머리로 레이어 컷의 업스타일이 앙글레즈 스타일로 물결을 이룬 듯한 드라이 기법이 유행하였다. 원랭스의 딱딱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스트레이트 헤어라도 옆선에서 층을 많이 내어 소프트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에서는 1970~80년대 여배우들을 중요한 이미지 모델로 삼고 있을 정도다^{10,11)}.

1980년대는 오일쇼크로 인한 불안과 절망으로 과장되게 부풀린 앞머리, 불규칙한 퍼머 스타일이 성행한 파마 전성기였다. 70년대 한창 주도했던 헤어스타일이 싫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드라이기의 보급으로 인해 파마를 하고 집에서 스스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되어갔다. 80년대는 파마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민감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똑같이 머리를 할 정도였다. 여성들의 머리모양은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 컷과 그에 따른 파마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그 파마머리에 ब्ल로우 드라이로 부드럽고 유연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스타일로 펌이 자리를 잡았으며 스트레이트, 드라이 파마, 부메랑, 핀컬, 보브 파마, 1/2파마, 기본형, 뿌리 파마, 디자인파마 등 파마스타일의 명칭은 사용한 기구의 이름이나 시술후의 머리모양에 따라 분류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새로운 펌이 등장하면서 디스코 룩이라는 필요한 부분에만 웨이브를 넣은 디자인 파마들의 인기가 계속되었다. 브룩 쉘즈의 전형적인 파마 웨이브 그 자체로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굽은 웨이브라면 풀렸다고 할 정도로 늘어진 형태의 모양에 앞머리는 짧지만 올리건 내리건 옆 가르마건 자유스럽고 섹시한 스타일이다.

경직되고 깔끔한 단발에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최대한 부드러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한 웨이브보다는 거의 뿌리 부분을 살리기 위한 드라이파마의 테크닉이 강조되었다. 세팅한 듯한 정도로 뿌리를 강하게 띄운 볼륨, 파마를 한 후 드라이로 모발의 움직임을 결정하였고 헤어 왁스를 사용하여 윤기를 살렸다. 이렇게 한국인의 모질은 직모 이면서 굽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어 단발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단발의 자연스러운 모발의 선을 강조해온 스타일이 한국여성의 얼굴을 보완해주는 스타일이 유행되면서 자기의 개성 보안과 일률적인 스타일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기구의 테크닉에 의해 웨이브의 형태와 모

양이 색다르게 연출되었다. 볼륨 파마, 내추럴 스타일도 변화되었으며 인위적인 미보다는 내추럴한 웨이브를 선호하였다.

특히 유행했던 머리는 자존심 머리였다<그림 11>. 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처럼 앞머리를 높이 세워서 볼륨을 많이 주는 것이 유행이었다. 파마의 컬이 훨씬 굵어지고 자연스러워 졌다. 처녀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일반 부인들은 대부분 파마나 셋팅을 했으며 길게 풀고 다니는 생머리는 드물었다. 또 이 당시의 미용실도 대화화되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곳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변두리 미용실을 제외하고는 샴푸시설이 생겼다. 또 남자들도 이때부터 미용실로 오기 시작했다¹³⁾.

1982년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로 여학생들의 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학생들의 둔탁하고 단순한 형의 보브 스타일이 개성을 중시하며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클리퍼와 레이저를 병행한 커트인 핑크나 상고 스타일 스파니엘의 변형이나 남학생들이 스포츠 머리등 유행과 헤어드라이어의 도입으로 다양한 미용기구와 제품들을 사용하여 개성을 나타내어 패션의 가치를 창출하는 세대의 연령이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다.

84년부터는 가위와 바리깡의 부조화 커트라인이 유행함에 따라 헤어 디자인에 바리깡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여대생이나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핑크헤어, 또는 디스코머리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참신한 멋으로 유행하였고 커트와 퍼머가 다양해졌고 새 질감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신 미용기구도 선보이기 시작했다. 스트레이트 펌은 웨이브 펌에 싫증이 난 젊은 층들이 선호하였다. 그들은 찰랑거리는 헤어스타일을 신기해했다. “생머리도 펌을 한다”는 유행어를 파생시키며 연로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했으나 여전히 여성들은 매끄러운 타입을 즐겼으며 번거로운 3~4시간의 시술과정을 거치면서도 크게 유행이 되었다. 80년대 중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미용인들이 국제 대회나 헤어 쇼에 참가하였고 세계 유명 미용사들의 학교인 영국의 비달 사순과 알란 인터내셔널, 토니 앤 가이, 미국의 피봇 등에서 미용을 연수하고 돌아왔다. 세계 미용사들의 새로운 헤어 컬렉션을 본 우리나라 미용인들은 자신의 미용실에서 이러한 헤어스타일들을 고객들에게 시술해 세계의 유행을 따랐다.

조선시대의 세 가닥 땅기에서 유래된 섞어 땅기는 긴 머리를 프랑스식으로 땅아 변형되어진 것이다. 긴

머리에서는 두상에 붙어 땅는 스타일이 매우 간편하고 활동적으로 이용되었다. 포니테일 보다는 더 깔끔하여 우아해 보이고 한복을 입을 때에도 처녀들은 디스코 댕기를 즐겼다. 80년대 초에 흑백에서 컬러 TV로의 전환함으로 인해서 색채에 대한 이론이 대중매체를 타고 더욱 확산되었으며 유행의 흐름 또한 하루가 다르게 창조되어 일반인들도 손쉽게 모방할 수 있었다. 연예인들의 모션 하나하나가 민감한 십대들의 취향과 어우러져 매스컴을 통한 오빠 부대가 등장하였으며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선호하여 개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80년대의 헤어로는 마치 잔디를 깨끗이 깎은 듯한 남자처럼 짧게 깎은 커트 머리를 뒤로 빚어 남장 여인을 연상케 하는 스타일로 양쪽 측면은 붙여주고 앞머리를 수탉 벼슬처럼 꽃꽂이 세운 핑크형 가수 데이비드 보위를 흉내 낸 스타일 등이 전반



<그림 9> 1980년대 서양의 헤어스타일-5 <http://movieland.pe.kr>



<그림 10> 1980년대 한국의 헤어스타일-5 http://misskorea.hankooki.com/photo_image

적으로 소년처럼 보이는 머리형이 유행이었다. 이런 독특한 스타일은 당시 유행했던 뉴 에이지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헤어 디자이너들의 감성이 여기저기에서 빛나기 시작하였으며, 유행의 흐름을 보여주는 갖가지 패션 가운데 헤어의 위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었다. 80년대 후반에는 스프레이로 딱딱하게 고정시킨 단정하고 고정된 머리형에서 바람에 물결이 흐르는 듯 머리 곁이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자연스런 파마 스타일과 소프트한 질감의 머리에서 신선함을 느끼는 경향이였다. 드라이가 등장하여 딱딱한 고대머리 유행이 사라졌다. 서양 헤어스타일과 우리나라의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스타일 유지에 따른 두발 제품도 같이 쓰이게 되어 다양한 두발제품이 많이 사용되었다. 스타일링 두발 제품에 의해 촉촉이 젖은 듯하면서 부드럽게 윤기 나는 머리형은 프랑스의 미용사 장 루이 다비드에 의해 소개되었다. 컬러 방송이 시작되면서 일부 연예인들의 우상화로 10대들의 모방심리를 부추겨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의 유행을 확산 시켰다. 그러나, 서양에서 유행한 강한 언밸런스 와 도전적인 스타일의 비대칭은 세련된 스타일이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웨이브 헤어스타일의 강세로 두드러진 유행이 되지 못하고 흘러 지나갔다. 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미용계는 더욱 국제화되었고 헤어패션에도 더욱 개성을 추구하여 특정한 유행스타일에 머물지 않았다.

한국 전쟁 후 88올림픽의 개최로 인하여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헤어, 패션 등 전반적인 한국의 가치가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비약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한 한국사회의 발전상이 공개되어 재인식 되었다

III. 결 론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40년대 중반이후부터 1980년대 까지 서양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시대적으로 분석하였다. 1940년대 중반 서양에서는 곱술 거리는 긴 머리와 등 뒤와 어깨위로 길게 늘어뜨린 긴 머리를 이마 위로 빗어 넘긴 팜프도어 모양이 유행하였고, 이와 같은 서양 헤어스타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들레 머리와 비슷하게 변형되어 학생들 사이에 유행이 되었으며 또 서양의 영향으로 퍼머넌트 스타일이 등장하여 전기 파마와 더불어 가봉 파마가 나오고 원

롤 지라시 등의 아이론을 이용한 웨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50년대 서양의 포니테일 스타일, 푸들컷 스타일은 우리나라의 볼 파마에서부터 콜드파마까지 파마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룩하였으며 아이론을 이용한 웨이브, 업스타일을 유행시켰다. 1960년대 서양에서는 가발을 이용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며 성숙한 매력을 표현한 기법으로 크라운 봄베이지 (Crown Bombege) 스타일이 들어왔다. 그러나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는데 서양에서는 양감을 많이 살린 스타일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다른 형태인 작은 방울들을 약간 넣은 아기자기한 업 스타일과 보브의 조합으로 바뀌었다. 이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미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70년대 서양은 비탈사순의 영향으로 각도에 의한 기하학적 커트 스타일이 붐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초기에 유행한 커트로는 스케어 커트를 들 수 있는데, 이 커트는 뒤 목덜미 부위에 길게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게 하는 커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거지커트로 한동안 유행하였으나 두상이 나오고 목선이 긴 서양인에게는 어울렸지만 목선이 짧고 두상이 납작한 한국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기장이 다소 짧으면서 스타일은 비슷하게 변형되어 지금까지 꾸준한 스타일로 정착되고 있다. 파마도 생활화되기 시작하여 꼬불꼬불한, 강한 컬 (Curl)의 파마가 유행되었다.

서양의 80년대는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도입되어 레트로 룩(Retro Look)이 주류를 이뤄, 컬(Curl), 웨이브(Wave), 펄(Permanent Wave)이 등장하였으며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아한 헤어스타일이 여성미와 모발의 선을 표현한 블린트 커트와 여기에 약간의 레이어를 주어 한국여성의 얼굴형을 보완해주는 스타일과 깔끔한 블로우 테크닉이 유행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각 시대별로 서양의 헤어스타일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의 미용문화 연구는 우리나라 헤어스타일 연구를 위해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문화의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한국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습속으로부터 전래된 부분도 있

지만 서양의 문화와 많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각 개인의 개성 연출의 헤어스타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온 의상, 메이크업, 패션과 함께 유행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그 당시 서양의 사회상이 헤어스타일에 반영되면서 개성의 강조와 유행 속에 한국 여성들의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서양 사회 문화와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공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진 문화와 기술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모양, 머리모양의 특성에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창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컴퓨터의 발달로 전 세계가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의 문명을 접할 수 있어 헤어스타일도 그 변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후속 논문에서 우리 전통문화와 한국인의 체형을 특성화한 헤어스타일 창조를 위해 90년대 이후 헤어스타일 변천과 그와 관련된 한국 미용문화 발전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권대순(1999). 한국미용문화의 변천과 소비행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 2) 미용교재연구회(1998). 종합미용이론. 유신문화사, p.2.
- 3) Georgina Howell(1991). In Vogue 75 Years of Style. London: Conde Nast Books, p.128.
- 4) 레이디 경향(2001). 3월호. pp.329-330.
- 5) Dylan Jones(1990). Haircults. London: Thames and Hudson, p.39.
- 6) Diane Fishman & Marcia Powell(1993). Vidal Sassoon. N.Y: Rizzoli,, p.60.
- 7) 여성중앙(1995). 8월호, p.257.
- 8) 전완길 외(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서울:장원, pp. 108-109.
- 9) Diane Fishman & Marcia Powell,op,cit, p.71.
- 10) http://www.cyberbeauty.co.kr/link/link_woman.html. 2002.5.7
- 11) http://www.cyberbeauty.co.kr/link/link_woman.html.2002. 5.7
- 12) 유수경(1990). 한국 여성양장 문화변천사. 서울:일지사, pp.158-159.
- 13) 미용정보신문(2002). 제265호, p.7.